

베드로전서 강해

사랑의 하모니 (벵전 3:1~7)

반태호 목사 / 2004년 7월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던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핍박받는 이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은 산소망과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의 시대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오늘날의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의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여성들이 믿음을 지키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국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그네들에게는 이중고였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거의 무시되던 시대, 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남자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가운데 아내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즘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입장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즉 사단과 어둠과 영적전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교회에 간다면 남편이 밀어줘야 할듯 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함임을 알 것입니다. 부인이 신앙으로 변화되면 남편의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를 가정파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부유해 졌지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결혼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 성공을 누리면 저절로 잘 되어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문제를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 동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백년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결혼식과 결혼생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 하는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결혼할 때 원칙은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도 그런 준비를 하기보다는 결혼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합니다. 결혼식은 일종의 임시면허증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운전을 잘할 수 없듯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처음부터 결혼생활을 잘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이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죄인들이 만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신이 섬김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변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런 뜻을 살피기 전에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가정은 구속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듯이 그런 가정도 구원받아 새로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가정을 지키면서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는 아내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시작했을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됩니다. 그 위에 성경적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타나는 남편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다른 위로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믿음을 훼방하고 괴롭히는 남편에게 순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믿는 부인이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 그의 미숙함을 알게됩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아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자꾸만 남편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남편이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말까지 순복하라는 뜻으로 이 성경말씀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손종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순복에는 분명히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예를 지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성경구절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아내의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순복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내의 순복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까닭이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무지한 남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보지 않고 있는듯이 느껴져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순복하는 듯하고 진실로 대하는 듯하면 남편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남편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 앞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남편은 압니다. 남편에게 존중받는 것은 외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남편들은 아름답게 꾸민 아내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외모만을 신경쓰는 아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속이 꽉차고 자기의 내면의 평온함과 자신감 등이 있다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됩니다.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과시하게 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열심히 꾸미게 되면 성적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다보면 오히려 남들에게는 소홀하게 됩니다. 이웃과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남편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운 것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풍길 수 있을 때는 잠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여성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외모와 아름다움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승부를 건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을 개발하고 성품을 개발하고 성품을 가꾼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순복

저는 세월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고 혈기가 강하니까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 말씀속에서 다듬어져가고 깎여져 가면서 내면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 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와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가꾸는 일은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 외모로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치있고 자신감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고 실력없는 사람의 순종은 비굴하고 두려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되고 온유한 심정으로만 상냥하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가꾸면 남편이 알고 이웃이 압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정말 가치있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을 가꿀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가꾸고 내면을 가꾸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세상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순복하는 삶이 가치없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남들은 지혜롭게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사는듯이 보이는데 순복하며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에 기초해서 그 위에 쌓았던 것들은 무너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진 것은 견고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거룩한 부녀들의 특징은 남편에게 순복했던 여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볼 만큼 그녀의 가치는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이 잘못 판단을 했던지 그녀는 부자이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어리석은 실수를 해도 그 뒤통자거리며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을 섬기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왕이되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남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사람에게 순복하고 얹히고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한 여인의 대표적인 예가 사라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시한 것이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지라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편된 도리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받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국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는 여러 구절의 말로 권면하고, 남편에게는 단 한구절의 말로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의 관계에서는 아내의 입장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오히려 여자들이 아들을 더 원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자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인듯 합니다. 어찌보면 잘 섬기고 순복하면 아내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한 줄 속에 담긴 남편의 역할은 훨씬 복잡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구절을 보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성경은 아내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며, 존귀한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남자 와 여자의 우열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에게 잘한다고 해도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 위에 굴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아내위에 굴림하기 보다 아내를 존중합니다. 아내의 자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귀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내와의 좋은 관계야 말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속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모든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귀한 아내와 남편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

<http://file.onnurityv.com>